

〈時 論〉

60年代에서 70年代로

社團法人 韓國타이어工業協會
安 文 圭

거리에는 아름다운 色彩로 裝飾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징글벨의 音樂소리는 지나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온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무드로 물들어 있구나, 크리스마스는 家族과 함께 집에서 또는 敎會에서 조용히 보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信者外에는 별로 關係가 없는 날로서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탄생되었다는 날이지 결코 술을 마시며 노는 날은 아닌 것이다.

1969年의 한해도 몇일 있으면 60年代에서 70代로 바꾸어져 새로운 歷史가 시작되는 것이다. 歷史는 恒常 變한다. 時代는 쉬지않고 發展을 하며 따라서 歷史는 바꾸어 지는 것이다. 2000年 以上이나 歷史가 變遷하여 至今에 이르기까지 高度로 世界는 發達하였으나 그 어느 時代보다도 60年代에 들어와서 科學은 飛躍的으로 發達하여 왔다. 1945年 第二次 世界大戰이 끝나서 부터 美國을 위시로한 先進國에서는 戰爭後의 修復期인 40年代와 50年代가 지나고 60年代에 들어와서 부터는 國力을 좌우 할 수 있는 軍事 武器만 하드래도 美國과 朝鮮이 60年代 초부터 絕對武器라고 宣傳된 ICBM(大陸間彈導導彈)을 開發하기 始作하여 60年代 中반에 들어서자 이들은 그 絕對武器를 막을 수 있다던 ABM(追擊미사일)에 손을 대기 始作했다. 지금 이들은 다시 그 ABM도 돌파할 수 있다는 MIRV(個別目標照準再突入 多彈頭미사일)을 實驗하고 있으며 全世界 核武器保有量은 그 爆發力을 TNT로 환산해서 約 4백억톤으로 推算되고 있다. 이것은 世界人口 한사람 앞에 10톤씩이나 돌아 갈 수 있는 무서운 量이다. 美國과 朝鮮은 이러한 核武器危險性을 抑制하기 위하여 지난 11月 24日 核擴散禁止條約을 批准하였다.

또한 人間은 地球에서 뿐만 아니라 宇宙開拓으로서 1961年 4月 12日 朝鮮의 加가린이 탄

有人 宇宙船「보스토프 1호」를 발사하여 地球를 一回轉한 다음 歸還시킴으로서 人工衛星의 計劃이 始作되어 今年에는 美國에서 「아폴로 11호 및 12호」 宇宙船을 타고 달을 두번이나 갔다 옴으로서 人間의 무한한 힘을 全世界에 보여주었으며 過去의 人間으로서는 달에 갔다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神秘의 베일을 버껴어 1960年代의 마지막 「피날레」를 裝飾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科學은 時間이 지남에 따라 發展하는 時代에 놓여 있지만 人間의 生命만큼은 造物主가 정해 놓은 壽命의에는 더 살 수가 없으며 이 좋은 光景을 못보고 60年代를 못 넘기고 無로 돌아간 사람들을 생각할 때 허무한 마음 禁할길이 없구나! 이러한 時代의 發展은 韓國에서만 하드래도 1950年 6月 25日 韓國動亂으로 인하여 50年代는 戰爭의 修復期에 지나지 않았지만 60年代에 들어와서는 많은 變遷過程과 함께 韓國의 經濟的인 面에 있어서 많은 發展을 갖어 왔다.

예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高架道路와 高速道路라는 새로운 말과 함께 祖國近代化의 지름길의 하나라는 道路가 急速度로 發達하여졌으며 서울의 거리마다 高層建物은 前年代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클름 옛 서울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고 蔚山工業道市를 비롯하여 대단위 生産工場이 建設되었다. 또한 前年代에서는 들어볼수 없는 輸出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부터 今年에는 7억불의 輸出目標 達成의 마지막 끝인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한편 第二, 第三共和國의 政治的인 大變遷도 갖어 왔으며, 前年代에 國家의 많은 指導者들도 至今은 永遠히 이름만 남기었구나! 人間은 動物과 달리 생각할수 있는 萬物의 靈長이라고 말하여 왔지만 오늘날 이 時代야 말로 人間의 생각 까지도 人間이 안하고 人間이 만든 Computer

가 하는 超技術的인 「Computer 時代」로서 世界는 飛躍하고 있는 것이다. 果然 1960年代는 이와 같이 Computer 時代까지 發展을 하였는데 1970年代는 人間의 科學은 얼마나 發達 할 것인가? 至今보다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科學의 말(言)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

10年前에 人間이 달에 갔다 올수 있도록 科學이 發展한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10年후면 人間이 달에 아니라 世界의 다른 天體인 金星에도 갈수 있고 人間의 衣食住가 바뀌어져 人間의 生活狀態가 바뀌어지러가는 생각한다. 至今과 같이 발전보다도 飛躍하는 時代가 이대로만 繼續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世界를 움직이는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先進國이나 또는 先進國의 指導者들도 똑같은 人間이기 때문에 일시의 잘못된 判斷으로서 世界의 人類가 恐怖의 對象이 될수 있는 世界三次大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恐怖心도 갖어 본다. 그러한 사람들은 보다더 높은 次元下에서 人間이 아무리 위대하고 超技術化된 存在라고 하더라도 참다운 人間의 價値를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時代에 있어서 人間이 第一 무서워 하는 것은 戰爭이고 또 世界의 平和가 維持될려면 그 첫째 條件이 戰爭이 없는 世上이 되어야 할 것이다. 全世界를 하루 아침에 재담이로 만들수 있는 이러한 核武器가 發達했으니 人間에게는 戰爭이라는 것이 하나의 恐怖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됨으로서 世界는 永遠한 樂園으로 發展해 갈 것이며 人間은 樂園의 世界에서 幸福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나는 어서 빨리 1970年代의 밝은 불빛이 비쳐지

를 기다리지며 새로운 年代에서 世上의 發展되는 現象을 보고 싶도다.

또한 韓國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後進國」이라는 이름을 면하고 좀더 近代的인 經濟社會가 되기 위한 그 첫째는 어느 누구의 한사람의 指導者의 努力보다도 전체 國民의 마음과 態度부터 改善해야 한다. 國民의 한사람 한사람의 思考方式의 現代化가 무엇보다도 國家가 現代化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모든 國民은 自己가 할일이 무엇인가 뚜렷한 目標——즉 自己가 하고 있는 일을 自己自身이 精確한 일의 價値를 判斷할 줄 알고 올바른 目標下에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 後進國에 있어서 政治的인 安定性은 經濟產業發展에 中樞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過去의 韓國의 歷史를 보면 우리 祖上들의 指導者들은 半萬年이나 國家를 다스려 왔지만 대부분이 事大主義의 思想下에서 權力의 爭奪戰으로 나라를 어지럽혔으며 다른 나라와 比較할 때 國家의 政治가 올바르지 못했으니 그만큼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發達하지 못했다는 原因을 歷史로서 證明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70年代에는 60年代보다 더한층 政治的인 安定性을 갖어와 國民을 指導해야 後進國을 脫皮하는 年代로 될 것이다.

70年代의 밝은 불빛이 비추어질 날도 앞으로 몇일 남지 않았다. 모든 國民들은 이 年代에 또한 이해에 못 다한 일들을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서 1970年代를 맞아 들어서 世界의 움직임을 내다 보면서 잘 살기 위하여 다같이 努力을 합시다.

